



보도시점

2023. 11. 2.(목) 07:30
11. 2.(목) 석간

배포

2023. 11. 1.(수)

“지난해보다 김장비용 부담을 낮춰 드립니다!” - 정부 할인지원, 비축물량 공급 대폭 확대 -

-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 마련
- 정부 비축물량 등을 활용하여 전년비 100% 증가한 2.1만톤(최대) 김장재료 공급
- 예비비를 확보하여 농수산물 할인지원예산도 전년보다 78% 증액한 245억원을 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월간 구입 한도도 30만원씩 상향
- 김장 주재료인 배추와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대파, 생강은 농산물할인지원과는 별도로 생산자단체의 마트 납품단가 인하도 지원

정부는 11월 2일(목)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023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확정하였다. 이번 대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함께 마련하였다.

올해 소비자 대상 김장 의향조사(농촌경제연구원, 10월)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김치를 직접 담그겠다는 비율은 63.3%로 전년보다 1.8% 포인트 감소하였고, 4인가족 기준 김장규모도 전년(21.8포기)보다 감소한 19.9포기로 조사되어 김장재료 수요는 전반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주요 김장재료 공급여건은 대체로 양호한 상황으로 주재료인 배추는 전평년비 생산량은 감소하겠지만 전남, 전북 등 김장 성수기(11.중~12.상) 출하지역 작황이 양호하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며, 무·마늘·새우젓은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다만, 소금·고춧가루·대파 등은 공급량 부족이 우려되고 가격도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김장부담을 전년보다 낮추기 위해서 ‘2023년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대책은 김장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수산물할인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의 김장재료* 구매비용을 전년보다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붙임1 참조)

* (14개 품목)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대파, 쪽파, 양파, 생강, 갓, 미나리, 배,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첫째, 김장 주재료인 배추·무와 공급 감소가 우려되는 고춧가루, 대파 등 농산물은 수입산을 포함한 정부비축물량(약 1.1만톤)을 최대한 방출한다. 천일염은 역대 최고 수준인 1만톤을 전통시장, 마트 등에 시중가격 대비 1/3 수준으로 할인하여 공급한다.

둘째, ‘농수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전년(138억원)보다 대폭 증액한 245억원을 투입하고, 이와 별도로 김장 주재료인 배추와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대파, 생강은 농협 등과 협조하여 대형마트 공급가격 인하를 지원한다.

셋째, 김장재료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김장 관련 정보도 수시로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김장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 김치를 담그는 우리나라의 고유문화인 만큼, 국민들께서 김장재료 구매에 부담을 느껴 김장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장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밝혔다.

또한 “김장의 주재료인 가을배추는 재배지역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10월 중순부터 12월 하순까지 계속 생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11월 중순부터 출하되는 남부지역 공급량이 증가할 전망이므로 ‘농산물유통정보 누리집(kamis.or.kr)’ 등을 통해 제공되는 배추 가격을 살피시면서 김장 시기를 결정하실 것을 권해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1.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요약)

2. 김장 개요(김장의향조사 포함) 및 김장재료 비중

담당 부서 <총괄>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책임자	과 장	신우식 (044-201-2331)
		담당자	사무관	배민식 (044-201-2332)
<수산물>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구도형 (044-200-5440)
		담당자	서기관	정재훈 (044-200-5627)
<온누리 상품권>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책임자	과 장	안원호 (044-204-7890)
		담당자	사무관	장수환 (044-204-7893)



I. 수급 현황 및 전망

□ **(추진배경)** 김장은 매년 11~12월에 다수 국민이 참여하여 김치를 담그는 문화적 행사로 국민 관심 및 물가 체감도가 높은 특성

○ 특히 금년은 이례적 여름철 고온·다습*으로 배추 등 김장 채소류 생육이 부진하여 추석 이후에도 가격이 높은 상황이 전개

* 평균기온 24.7°C(최근 50년간 4위), 평균 최저기온 21.1°C(2위), 강수량 1018.5mm(5위)

○ 소비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김장재료 수급 전망에 기초하여 '김장 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23년 소비자 김장의향 조사(600명, 10.4~13, 농촌경제연구원) >

- ▶ 김장의향 조사 결과 전년보다 '직접 담금' 가구 비율 및 가구별 '김장 규모' 모두 감소
 - (김장의향) '직접 담금' 63.3%(전년 65.1%), 시판김치 구매 29.5%(전년 25.7%), 기타 7.2%
 - (김장규모) 4인가족 기준 전년비 1.9포기 감소한 19.9포기 (총수요량은 9만톤 감소)
 - * 4인가족 기준 김장규모(배추 구매의향) : (평년) 22.1, (21) 22.1 → (22) 21.8
 - (김장시기) 강원부터 11월 상순 시작되며, 11.중순~12.상순 기간이 73%

□ **(수급전망)** 김장 수요감소 고려 시 공급여건은 대체로 양호하나, 전년 수준의 가격관리를 위해서는 배추, 소금 등 주요 품목 수급대책 필요

○ **(주재료)** 평년대비 가을배추 생산량은 2.4%(3만톤) 감소(127만톤), 무는 2.4% 증가(39만톤), 소금(천일염)은 7.7% 감소(23만톤) 전망

- 가을배추는 생산량은 감소하지만 고창, 해남 등 남부지역 작황이 양호하여 작기(10.중~12.하)* 후반으로 갈수록 공급여건은 나아질 전망

* 순별 주 출하지: (10.하) 평창, 영월, 횡성, 영양 → (11.상) 춘천, 영월, 괴산, 영양, 문경 → (11.중) 춘천, 아산, 고창, 해남 → (11.하) 고창, 해남 → (12월) 해남, 진도

- 소금은 잦은 강우와 태풍으로 감소하였고, 주산지 생산 종료된 상황

○ **(부재료)** 마늘·양파·새우젓은 생산량 증가로 평년대비 가격하락, 고춧가루·대파·쪽파·미나리·배 등은 상승 전망

II. 수급안정 대책

《 기 본 방 향 》

- ◆ 수급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요 품목 할인지원 등을 통한 소비자 체감물가 경감

〈1. 공급 안정〉

- (배추·무) 농협 출하계약 물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순별(旬別) 공급량을 조절하여 도매시장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관리
 - (배추) 김장 수요에 대응하여 농협 출하계약 물량(2.7천톤: 11월 2천톤, 12월 7백톤)을 도매시장에 집중 공급
 - 김장 성수기(11.중순~12.상순)에 공급량 부족시에는 상대적으로 공급 여력(평년비 2.9%↑)이 있는 12월 출하물량 조기출하 장려* 추진
 - * 12월초 출하 계약재배 물량을 11월 하순에 출하하면 운송비, 도매시장 수수료 지원
 - (무) 공급량이 충분한 10~11월 출하량 중 일부를 수매(10.17~, 최대 1천톤)하여 우천 등으로 인한 일시적 공급 부족(11~12월)에 대비
 - 필요시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지에 할인공급 추진(최대 30%)
 - * '23.10월 가락시장 무 반입량(일 640톤, 평년비 6.6%↑, 전년비 7.9%↑)
- (양념류) 가격 동향 지속 점검 및 정부 비축물량(4천톤: 마늘 1.2천톤, 고추 2.8천톤)을 시장에 조기 공급하여 김장철 가격 안정 추진
 - 고추는 수입 비축물량(2.8천톤)을 전통시장 등에 조기 공급하고, 마늘은 국산 비축물량(1.2천톤)을 도매시장 등에 공급(11.10~12.8.)
 - 특히 공급 부족이 전망되는 대파는 할당관세(2천톤)를 추진하고, 건고추는 TRQ 추가(1.4천톤) 도입 검토
- (천일염) 정부 비축물량 최대 1만톤(국산 5천, 수입 5천)을 전통시장·마트 등에 시중가(약 3만원/10kg) 대비 1β 수준으로 일괄 할인 판매
 - * 일부 물량은 김치 제조업체 등에 도매가격 대비 30% 이상 할인 공급(B2B)
 - ** 수입산은 철저한 안전성·품질검사 후 수요조사를 거쳐 공급

〈2. 소비자 부담 완화〉

- **(농산물 할인지원)**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등 김장 채소류를 대형마트 등에서 20~30% 할인지원 하여, 소비자 부담을 최대 50%*까지 경감
 - * 정부지원 20~30% + 업체별 자체할인 : 이마트 10~30%, 롯데마트 20%, 홈플러스 15~30% 등
- 농산물 할인한도를 평시 대비 증액, 대형·중소형마트, 하나로마트, 온라인몰 등 전국 16,435개소에서 행사 실시(11.2~11.29, 120억원)
 - * 김장재료 할인한도 증액: 1인 주간 1만원(전통시장 2만원) → 2(전통시장 3),
- 특히 주재료인 배추와 수급이 불안한 대파, 생강은 대형마트 공급 가격 인하 지원 병행(배추 최대 10천톤, 대파 1.3천톤, 생강 0.15천톤, 35억원)
 - * 지원금액: 배추 최대 1천원/포기, 생강 2천원/kg, 대파 5백원/kg
- 김장철 성수 품목인 돼지고기는 한돈자조금(6억원 내외)을 활용하여 선호부위(삼겹살, 앞다리살 등) 할인(20% 내외) 지원
- **(수산물 할인지원)** 천일염은 30%, 새우젓·멸치액젓·굴 등 모든 수산물 대상 최대 60% 할인*(11.2~26, 75억원, 38개 온·오프라인 업체)
 - * 정부 할인 지원 30%(1인당 최대 2만원) + 업체 자체할인 최대 30%
- 국산 수산물을 최대 40% 할인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개최하여 소비자 체감물가 인하(11.20~26, 50억원, 전국 51개소 예정)
- **(온누리상품권 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를 12월말까지 1인당 월간 최대 30만원 확대 소비자부담 완화(중기부)
 - 김장재료 판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상품권 가맹점 가입도 유도
 - * 구매한도 확대: 지류형(100만원→130), 카드형(150만원→180), 모바일(150만원→180)
- **(농협 특판행사)** 10월말까지 긴급 할인행사를 실시(2회)하고, 김장 성수기(11월 2회) 및 연말까지(12월 3회) 특별 할인행사를 전사적으로 추진
 - 특히 김장 성수기인 11월에는 하나로마트(2,200여개), 농협 온라인몰을 총동원하여 절임배추 등 김장재료를 최대 40% 할인(11.2~29)

〈3. 홍보 및 소비자 보호 강화〉

□ (정보제공) 농산물 유통정보(KAMIS, aT) 홈페이지 내 김장관련 정보 제공으로 합리적 소비 유도하고,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홍보 추진

○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김장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김장철 주요 할인행사, 구매처 등 정보 제공*

* KAMIS 김장 특집호 발행(11월, 2~3회), 홈페이지, 블로그·유튜브 등에서 정보 제공(aT)

* 김장비용 및 전망 발표(11.9일부터 주별 또는 순별 3~4회 제공)

○ 김장철을 앞두고 소비자단체의 농식품 가격 모니터링 등 물가 감시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활동 유도

* 주요 농산물의 온라인·대형마트 가격 조사 및 회원 대상 합리적 소비활동 유도

□ (안전성 관리) 김장채소류 부정유통 단속 및 안전성 관리 강화

○ 수입농산물(22개 품목) 유통이력 정보를 실시간 활용하여 김치, 양념채소등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상시 관리체계 구축(11.6.~12.8.)

- 전담 특별사법경찰 285명, 사이버단속반(68개반 300명) 및 명예감시원 등 운영

○ 김장철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배추, 무, 대파 등 채소류 대상 잔류농약(463종) 안전성 조사 실시(10.16.~12.1., 700건 이상)

* 최근 3년간 실적 : '20) 596건 조사/부적합 10건 → '21) 604/8 → '22) 716/15

〈4.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응체계 강화〉

□ 수급상황 상시 모니터링 및 실시간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반' 운영(11.1~12.20, 반장: 식량정책실장)

○ 매주 김장재료 수급 및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

* 대책반 구성: 품목(농식품부, 해수부), 할인지원(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 농협), 생육관리(농진청, 농협), 수급전망(농촌경제연구원 등) 담당기관 포함 4개팀 구성

참고 1

연도별 주요 김장대책 비교

□ 비축물량 등 공급가능량

(단위: 천톤)

	'22년	'23년	비고
배추	-	출하조절시설 2.7	
무	-	비축 1	
마늘	비축 5	비축 1.2	
고추	비축 1.4	수입비축 2.8, 추가수입 1.4	
대파	-	추가수입 2	
양파	비축 3.6	-	
소금	비축 0.5	비축 5, 수입비축 5	

□ 할인행사

	'22년	'23	비고
농산물 할인지원(11월)	85억원	120억원	
마트 납품가격 인하 지원	-	35억원	생산자단체에 지원
생산자단체 협업	한돈자조금 5억원 (돼지고기 할인)	한돈자조금 6억원 (돼지고기 할인)	
수산물 할인지원	할인판매(40억원) 온누리상품권 환급(13억원)	할인판매(75억원) 온누리상품권 환급(50억원)	해양 수산부
온누리 상품권 확대	전통시장 사용지원 (한도 30만원, 할인을 확대)	전통시장 사용지원 (한도 30만원/월 확대)	중소벤처 기업부

- 김장*은 매년 11~12월에 다수 국민이 참여하여 김치를 담그는 문화적 행사로 국민 관심 및 물가 체감도가 높은 특성

* 늦가을 또는 초겨울에 한꺼번에 많은 김치를 담그는 일을 말하며, 김장문화는 2013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

- (김장시기) 강원·경기 북부 지역부터 11월 상순 시작되어 충청·영호남권으로 확대되어 12월 하순 마무리

* 김장 시기는 11.중순~12.상순 기간에 73.0%로 집중(평년 기준)

- (김장규모) '21년 기준 김치 국내 제조량은 1,559천톤 수준이며, 이중 김장 규모는 약 22%인 350천톤 수준

* (21년) 국내 총공급량 1,800천톤[국내 1,559(가정 780+외식급식업체 302+제조사 477) + 수입 241]

- '23년 소비자 김장의향 조사* 결과 전년보다 '직접 담금' 가구 비율 및 가구별 '김장 규모(배추 구매)' 모두 감소

* 가구 소비자(600명) 대상 조사(10.4~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장규모) 4인 가구 기준 '23년 배추 구매의향은 가정 내 소비 감소 등으로 전년(21.8포기) 대비 1.9포기 감소한 19.9포기(8.7%↓)

* 배추 구매의향: (평년) 22.1포기 → ('21) 22.1 → ('22) 21.8 → ('23) 19.9

* 감소이유: '가정소비 감소'(45.6%), '시판김치 구매편리'(23.1%), '비용 부담'(8.8%)

- (김장시기) '전년과 비슷'이 90.9%, 11.중~12.상순이 73%를 차지

* 시기별 김장의향('23): (~11.상) 19%→ (11.중) 22%→ (11.하) 27%→ (12.상) 24%→ (12.중~) 9%

- (김치조달 형태) '직접 담금' 비중은 63.3%로 전년(65.1%) 대비 1.8% 포인트 감소, 시판김치 구매의향은 증가('22년 25.7% → '23년 29.5%)

* 시판김치 구매 이유: '필요한 만큼만 구매 가능해서(55%), '김치 담그기 번거로워서(33%) 순

김장재료 품목 및 비중 변경

- 2009년부터 배추·무·굴 등 13개 품목을 김장재료로 선정하여 조사(aT)
- 2009년 이후 식습관 변화(저염식 선호)와 보관방식 변경(김치냉장고 보편화) 등을 반영하여 2022년부터 주요 김장재료 조사 품목·비중 개선*

* 세계김치연구소, 김치협회 등 전문가 자문(2022년 10월 5일) 거쳐 개선안 마련

- 속재료인 배·양파 추가 및 단기 소비용 굴 제외, 최근 저염식 선호 등 반영하여 양념재료의 배합비중 조정*

* (비중 확대) 고춧가루, 깐마늘, 생강 (비중 축소) 소금, 새우젓, 대파, 쪽파, 갓, 미나리

품목	2021년 이전	2022년 이후	조정 사유
배추	20포기	20포기	4인가구 기준 평균 김장규모(평년 22.6포기) 고려하여 유지
무	10개	5개	세계김치연구소 표준 레시피 김치소 배합 비율 및 전문가 의견 반영하여 조정
고춧가루	1.86kg	2kg	"
깐마늘	1.2kg	1.3kg	"
대파	2kg	0.7kg	"
쪽파	2.4kg	0.7kg	"
양파	-	0.8kg	대부분 가정에서 양념에 사용(갈아서 첨가)하는 점 고려
생강	0.12kg	0.3kg	세계김치연구소 표준 레시피 김치소 배합 비율 및 전문가 의견 반영하여 조정
갓	2.6kg	1.4kg	"
미나리	2kg	0.4kg	"
배	-	1.8kg	대부분 가정에서 양념에 사용(갈아서 첨가)하는 점 고려
굴	2kg	-	저장용 김치 재료로 부적합
굵은소금	8kg	6kg	김치냉장고 보유 및 저염식 선호로 사용량 감소 반영
새우젓	1kg	0.8kg	"
멸치액젓	1.2kg	1.2kg	